



특집 _ 80여 개국 370여 명 참가... 한인회 운영 모범 사례 공유 “동포들이 통일 한국 이끌자”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화제 _ 한민족 비즈니스 장 ‘제14차 경주 세계한상대회’ 성료 수출 상담·관광 홍보·일자리 창출... “세 마리 토끼 잡다”



황복사 터 금제 아미타불좌상 통일신라 불상의 정수



황복사 터 금제 아미타불좌상



금동제 사리외함의 뚜껑 안쪽의 명문

1942년 황복사 터로 전해오는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절터의 삼층석탑을 해체·복원할 때 2층 지붕돌 상부의 사리공에서 두 점의 불상이 발견됐다. 불상이 담겨 있던 금동제 사리외함의 뚜껑 안쪽에는 해서체로 1행에 20자씩 총 18행의 명문과 99기의 작은 탑들이 새겨져 있다. 명문에는 천수(天授) 3년(692) 신문왕이 세상을 떠나자 신목태후가 왕위를 이은 아들 효소왕과 함께 종묘의

신성한 영령을 위해 선원 가람에 삼층석탑을 세웠다고 적혀 있다. 사리함 속에서 발견된 두 점의 불상 가운데 하나는 입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좌상이다. 두 불상의 양식이나 형식을 살펴보면 입상은 692년 석탑 건립 시기에 봉안되고, 좌상은 706년에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좌상은 신체 표현이 사실적이고 풍만하며, 옷 주름이 유려하고 자연스럽다. 이목구비의 경계가 분명한 점도 통일신라 불상의 특징이다. 불좌상은 8세기 전반, 통일신라의 불교미술이 당시 국제적으로 크게 유행하던 중국 당나라의 불상 양식을 새롭게 받아들여 어떻게 발전·전개시켰는지를 보여준다. 불좌상은 자연스럽게 사실적인 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육감적이거나 관능적인 과장된 입체감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중국 불상과 차이를 보이며 석굴암으로 전개되는 통일신라 불상의 절정을 예고한다. 불좌상은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인 통일신라 불교 조각의 세련된 미감과 섬세한 주조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불상의 정수를 보여준다. **창**



표지 이야기

지난 10월 13일부터 사흘간 '한(韓)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가는 한상(韓商)'이란 주제로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한상대회'가 차세대 한상 발굴·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창조경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며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 02 한국의 얼** 황복사 터 금제 아마타불좌상
 통일신라 불상의 정수
- 04 특집** 80여 개국 370여 명 참가... 한인회 운영 모범 사례 공유
 “동포들이 통일 한국 이끌자” 세계한인회대회 개최
- 06 동포 소식** 한인단체들 실리콘밸리 한복판서 ‘독도 플래시몹’ 외
- 09 동포 캘린더** 조지아 최초로 ‘한국영화제’ 개최 외
- 10 기획** 2000년대 이후 급속 성장한 싱가포르 한인사회
 금융, IT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자녀 한글교육에도 열성
- 12 화제** 한민족 비즈니스 장 ‘제14차 경주 세계한상대회’ 성료
 수출 상담·관광 홍보·일자리 창출... “세 마리 토끼 잡다”
- 14 글로벌 코리아** ‘재외동포 영웅 찾기 프로젝트’ 2탄의 주인공 허병렬 교사
 코리아인 페스티벌에서 본고장 남미 춤의 진수 선보인 크리스털 유
 보츠와나공화국에서 자동차 정비로 성공한 김채수 한인회장
- 16 지구촌 통신원** 중국 헤이룽장 성 인종군 의사 기념관 지역 명소 부상
 하얼빈역 개축하며 확장 예정
-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국내 사업 투자와 조세 감면 혜택
 원자력, 방송 외 해외투자 환영!
- 18 한민족 공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미국 공식 방문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 19 우리말 배워봅시다**
- 20 동포문학** 사랑하는 아들
 김익숙 _ 미국 _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
- 22 OKF 뉴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서 통일 위한 한인 네트워크 모색 외
- 24 고향의 맛·멋** 충남 논산의 강경 것갈 정식
 세월이 빛은 진정한 밥도둑
- 26 재단 공지**

특집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5일 오후 서울 광진구 쉐라톤그랜드워커히에서 열린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80여 개국 370여 명 참가... 한인회 운영 모범 사례 공유 “동포들이 통일 한국 이끌자”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이 고국에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렸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5일 오후 서울 광장동 쉐라톤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막을 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찾아온 한인회장 370여 명을 포함해 각계 인사 5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6회를 맞은 올해 대회에서 ‘광복 70년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 재외동포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 아래 동포 사회 현주소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했다.

개막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국회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려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6명을 포상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동포 여러분께서 각국에서 통일 전도사가 되셔서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루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심윤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중회의 수석부회장, 박노홍 연합뉴스 사장 등과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이숙순 중국한국인회장과 이경중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면 화해, 교류, 협력 등 남북한 당국의 노력과 더불어 재외동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와 거주국의 가교 역할

을 하는 700만 명의 재외동포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세계에 확산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상자로는 40여 년간 재일민단을 이끌어 온 김한익 재일민단 중앙본부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고, 동포 사회 현안을 심층 보도해 고국과 소통하도록 힘쓴 왕길환 연합뉴스 한민족뉴스부 차장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어 오후 7시에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2015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고 한인의 남미 이주 5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예술 공연을 펼쳤다.

이튿날인 6일에는 '광복 이후 한국', '우리나라 역사에서 본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이어 유럽·중국·아시아·일본 등 지역별 현안 토의를 통해 한글학교 활성화, 차세대 한인 육성, 한인 사회 위상 강화 등을 모색했다.

유럽 지역의 한 한인회장은 “이민 1세대인 우리는 조국이라는 게 밑바탕에 있지만 다음 세대는 그렇게 되기 힘들 것”이라며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강화하고 고국 방문 기회도 늘려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한국계 중·고교생을 ‘신(新) 차세대’로 보고 이들에게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차세대는 향후 거주국과 고국을 잇는 교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지역의 한 한인회장은 한인회가 차세대 동포의 주류 사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호주 각계에서 한인의 활약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정계와 미디어에 진출한 한인인 많지 않다”면서 “차세대 한인인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유력 정치인과의 면담 기회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한인 사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례도 소개됐다.

유럽 지역의 한 한인회장은 “현지 주민, 한국계 입양아, 다문화 가정 등을 초청해 한국 영화를 상영하는 등 고국의 문화를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동포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한 한인회장은 “거주국에서 한인회가 목소리만 크게 낸다고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가 한인회 예산 지원 등 동포를 위한 정책을 많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셋째 날에는 여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정당 정책 포럼’과 ‘정부와의 대화’가 열려 국회와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이어 한인회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도 열렸다.

나흘째인 8일에는 한인 사회의 의견을 모아 재외동포청 설립, 재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한인회장 370여 명이 참가했다.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식에서 공동의장인 이경중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이숙순 중국한국인회장 등이 통일기원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제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6 명을 포상했다.

외국민보호법 제정 및 소득세법 개정, 재외동포교류센터 설립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 동포 사회 화합 등을 다짐하면서 대회는 막을 내렸다.

내년 열리는 차기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동의장으로는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박세익 회장과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김브라이언 회장이 선출됐다. **장**

한인단체들 실리콘밸리 한복판서 '독도 플래시몹'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밸리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기하라고 촉구하는 플래시몹이 잇따라 열렸다. 미주실리콘밸리한인회(회장 신민호) 등이 지역 한인단체들은 새너제이 시청 앞에서 독도의 날 기념 울동 플래시몹을 펼쳤다.

이는 실리콘밸리 주민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한편 구글 측에 구글 지도의 '독도' 표기를 원상 복구하도록 촉구하는 행사다. 구글은 2012년 10월 지도 서비스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없애고 이를 '리앙쿠르 암초'라는 이름으로 대체했다.

1시간 후에는 인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10여 명이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캠퍼스로 이동해 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시청 앞에서 실리콘밸리한인회 등 이 지역 한인단체 회원 80여 명이 독도를 알리는 플래시몹을 벌이고 있다.

래시몹을 열었다. 이날 두 행사에 모두 참여한 김문경(UC 버클리 4학년·정치경제 전공) 씨는 "독도의 날을 맞아 한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같은 소리를 내자는 데 행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한인회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독도 홍보 플래시몹을 개최했으며, 당시 대학생을 중심으로 약 70명이 참여했다.

실리콘밸리한인회, 김진덕·정경식재단,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샌프란시스코지부 등이 지역 한인단체들은 '독도 수호 연대모임'을 결성해 지금까지 약 10만 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이를 구글 측에 전달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독립운동가 고려인 후손·공훈가수 등 고국 방문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을 찾았다. 고려인 동포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대표 이광길)와 고려인문화농업교류협력회(대표 오채선) 초청으로 10월 1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한한 후손은 흥범도 장군의 외손녀 김알라(73), 이인섭 선생의 딸 슬로보드치코바 스페틀라나(67)와 외손자 세르게이(35), 김규면 장군의 증손녀 박안나(20) 씨 등이다.

이들과 함께 고국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한 고려인 15명과 우즈베키스탄 공훈가수 신갈리나(59) 씨도 특별 초청됐다.

이들은 11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바로 광주광역시로 내려갔다.



10월 12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종합지원센터를 찾은 고려인 동포 모국 방문단이 함께 고향 음식을 나눠먹으며 러시아 민요를 부르 고 있다.

12~14일에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고려인마을을 찾아 반가운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뒤 서울로 올라오면서 천안 독립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남산골 한옥마을, 롯데월드몰 아쿠아리움, 안중근 의사 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을 돌아보고 15일에는 국회 사랑제에서 고려인 공훈가수 신갈리나 씨와 에릭 조 감독(조형영)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를 관람했다.

사단법인 고려인돕기운동본부는 1999년 발족 이래 매년 고려인을 초청하고 있다.

연변FC 중국 프로축구 1부 승격 이어 우승 확정

중국 프로축구 2부 갑(甲)급 리그의 연변FC가 1부 리그 승격에 이어 리그 우승을 확정 짓자 조선족 동포사회가 환호의 도가니에 빠졌다. 연변FC는 10월 24일 옌지(延吉)시 인민경기장에서 열린 갑급 리그 홈경기에서 후난(湖南)FC를 4대0으로 물리치고 리그 우승을 결정지었다. 앞서 연변FC는 지난 18일 중국 프로축구 1부 슈퍼리그 승격권을 획득했다.

연변팀은 작년 부진한 성적으로 3부 리그 강등이 예정됐으나 2부 리그 한 팀이 해체된 덕분에 간신히 갑급 리그에 잔류했다가 불과 1년 만에 수직 상승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기반으로 하는 연변FC가 패거리를 이루자 동포사회는 “지난 1965년 전(全) 중국축구대회에서



중국 프로축구 연변FC 박태하 감독. 한국 국가대표 코치를 지낸 박 감독은 2014년 12월부터 연변FC 지휘봉을 잡았다.

연변팀이 우승한 이후 50년 만에 1위를 차지했다”며 “연변팀 덕분에 행복하다”며 입을 모아 기쁨을 나타냈다.

연변일보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수요일 아침부터 옌지 각 매표소에 입장권을 구입하려고 인산인해를 이룬 팬들의 성원이 보상받았다”고 전했다. 옌지의 인터넷매체 조글로미디어는 “연변팀 우승으로 조선족사회가 희열의 늪에 풍덩 빠졌다”며 “연변뿐만 아니라 중국 타지, 외국에 흩어진 조선족 200만 명이 모두 환호했다”고 보도했다. 조글로미디어는 또 “내년도 거취로 주목받은 박태하 연변FC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 슈퍼리그에도 연변팀과 함께하겠다’며 잔류를 선언했다”고 소개했다. 박 감독은 팀과 2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ASEAN 진출 방안 모색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진출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의 센토사 리조트 월드에서 10월 18일 개막한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박기출)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장 박노항)가 ‘세계 속의 한민족, 하나 되는 경제권’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했다.

70개국 137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회원 7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동남아·서남아·중동을 잇고 ‘경제 허브’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는 한편 글로벌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0월 20일 막을 내렸다.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폐막에 앞서 열린 월드옥타 이사회의에서는 앞으로 수익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길을 열었고, 지금까지 정관에 포함하지 않았던 차세대를 정식으로 인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 회장은 폐회사에서 “34년의 역사를 지닌 월드옥타는 지금,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했

다”면서 “술한 역경을 이겨내고 국내 최대 규모 경제단체로 성장한 역사가 말해주듯 이번에도 우리는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일 제주인 1세대 16명 고향 방문

해방 전후 일본에 건너가 현재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 제주인 1세대 16명이 제주도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청으로 10월 5일 고향을 방문했다.

이번에 고향을 방문한 김순옥(87), 김치경(96) 할머니 등 16명은 이날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어린 시절 살던 마을을 둘러봤다. 이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친지도 만났다. 이들은 '문화왕국 탐라, 신명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7일 열린 제주의 전통문화 축제 탐라문화제 개막식에도 참여하고 주요 관광지도 둘러봤다.

이번에 방문한 김순옥 할머니는 4살 때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간 이후 고국을 방문하지 못했다가 80여 년 만에 처음



재일 제주인 1세대들이 10월 5일 제주시 희망원에서 열린 고향 방문 환영 행사에서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고향을 방문했다.

현재 재일동포 60만 명 중 제주 출신은 1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으로 찾았다.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은 해마다 100여 명의 인원이 10월에 열리는 탐라문화제에 참여해 왔다. 제주도는 형편이 안돼 이런 고향 방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포들을 위해 2011년 민단과 재일본 제주도민회 등을 통해 재일 제주인 1세대를 초청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주로 생활이 어렵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동포들을 대상으로 초청했으며 지난해까지 77명이

동포 방송인,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서 발전 방향 모색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지구촌 구석구석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해외 한국어방송사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국가 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주관으로 10월 28~30일 서울 여의도의 글래드호텔에서 '2015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를 개최했다.

해외 한국어 방송사는 미국 55개, 중국 18개, 캐나다 4개, 뉴질랜드 5개, 러시아 3개 등 18개국에 100개(TV·라디오)를 헤아린다. 이 가운데 올해 대회에는 6개국의 30개사에서 6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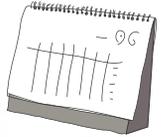
28일 글래드호텔 지하 1층 볼룸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해외 방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5년 해외 한국어 방송인 대회에서 내빈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인을 포함해 국내 방송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개막식에서는 동포방송사 자체 제작물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시상하는 해외 한국어방송 대상 시상식과 수상작 발표회가 열렸다. TV 부문에서는 미국 하와이 KBF D TV의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떨세', 라디오 부문에서는 미국 라디오서울하와이의 '김설아의 국악 갤러리'가 각각 최우수상에 뽑혔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호텔 세미나실과 여의도 KBS 연수원에서 '방송 콘텐츠 기획·제작·편집 워크숍'이 열렸고, 마지막 날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 한국어방송 경쟁력 점프업(Jump Up)'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장**



조지아 최초로 '한국영화제' 개최

아시아 흑해 연안에 있는 조지아에는 80여 명의 한인이 살고 있다. 조지아한인회(회장 이광복·사진)는 조지아 최고 명문인 자유대학과 공동으로 11월 14~15일 트빌리시 시내의 대학 강당에서 독도 홍보를 겸한 '한국영화제'를 처음으로 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자유대학은 한국어학과를 두고 있어 한국 문화 행사에 적극적"이라며 "언론에도 행사를 알리고 거리에서 팸플릿도 배포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인 강제 이주 희생자 후손들 러시아 상대 손해배상 청구

1937년 구소련 시절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던 한인 후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석 의원은 "저의 외조부인 김한 선생을 포함한 한인 2천 500명이 이주 과정에 저항하다 경찰에 체포돼 처형됐다"며 "이번 소송은 집단 학살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처형당한 사람들을 공원에 한꺼번에 묻었다는데 그건 반인륜적 집단 학살로 국제법상 공소시효가 없다"고 밝혔다.



뉴욕에 한국문화 알리는 '코리아 위크' 추진

내년 가을에 미국 뉴욕의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행사가 추진된다. 대한민국 뉴욕총영사관의 김기환 총영사는 10월 5일 "한류 확산을 위해 지난달 K-컬처 서포터스가 발족했다"면서 "후속 조치로 내년 가을에 '열린음악회'를 포함해 공연, 영화, 한식 등이 모두 어우러진 '코리아 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컬처 서포터스는 미국 현지의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한국 문화의 전도사이다.



브라질서 '의료 한류' 본격화, 한인병원 설립도 추진

브라질-한국 상공 회의소(Kocham·코참), 브라질 한인의 사협회는 10월 7일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과 사회공헌(CSR) 활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브라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이를 계기로 한인병원 설립 구상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창동 한인의사협회 회장은 "브라질 내 한인 의사가 200명을 넘어 한인병원 설립을 위한 인적 자원은 충분한 편"이라고 말했다.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인 부부 20쌍 합동결혼식 연다

광주광역시 고려인 공동체인 (사)고려인마을은 11월 11일, 26일 두 차례로 나눠 광산구 아름다운컨벤션 예식장에서 고려인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을 무료로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동안 새 가정을 꾸렸지만 어려운 경제 형편 탓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고려인 부부를 위해 마련됐다. 고려인마을은 광산구청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후원으로 고려인 부부 20쌍을 선발해 합동결혼식을 열고 세탁기, 1박 2일 여행 경비 등을 선물한다.



샌프란시스코 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1년 내에 착공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와 시장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를 착공기로 하고 건립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는 첫 대도시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9월 22일 전체회의에서 시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시 정부가 1년 내에 이를 건립하도록 했다.



2000년대 이후 급속 성장한 싱가포르 한인사회 금융, IT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자녀 한글교육에도 열성

싱가포르 이민 역사는 일제강점기 독립 투사였던 정대호 선생이 중국 쑨원의 소개로 이곳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시작됐다. 1956년에 싱가포르에 도착한 강장열 씨에 의하면 당시 동포는 정대호 선생의 아들인 정원상 씨와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수용소 감시원으로 왔다가 정착한 김영덕 씨 둘뿐이었다고 한다. 당시는 말레이시아가 독립하기 전으로서 말레이 전체에도 한국인이 거의 없었다.

싱가포르가 독립하고 난 60년대 이후부터 상거래를 목적으로 한 한국인의 출입이 시작됐다. 1962년 말레이시아에 한국대사관이 설치된 이후에는 정착하는 동포도 생겼다. 당시 전체 동포의 수는 17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들의 직업은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 싱가포르에 해운업 관계로 진출한 선장, 기관장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상인이 다수 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 11월 싱가포르와 통상대표부를 개설했고, 1972년 총영사관으로 승격했다.

싱가포르 한인회는 1963년 3월에 7명의 발기인으로 발족했다. 초대 한인회장은 정원상 씨가 맡았다. 1964년 12월 한인회 망년회 때 모두 27가족이 참석했다. 1969년 5월에는 한인회 사무국을 발족시키고 한인회비(연 20달러)를 책정했다. 총영사관이 설치된 1972년에는 한인회도 회칙을 개정하고 조직을 정비했으며, 1973년 12월에는 한인회 산하에 한글학교를 설립했다.

1975년에는 한인회의 주요 업무로서 야유회, 총회를 겸한 망년회 개최, 한글학교



운영, 한국 대표팀의 국제대회 출전 시 응원 등을 설정했다. 1977년에는 부인회가 발족(회장 김용구)했으며, 1979년에는 한인회관 설립 추진위원회와 한인회보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1981년에는 싱가포르 사회단체 법에 의해 한인회를 정식으로 등록했다.

1980년대에는 건설 노동자가 8천600명까지 늘어나 싱가포르 한인사회의 전체 구성원 수가 일시적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1982년에는 한인골프회가 발족했으며, 1984년에는 한인회 창립 이래 20여 년간 회장을 맡아 온 정원상 씨에 이어 강장열 씨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1985년 8월에 한인회 주최로 열린 체육대회에는 2천150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으며 동포 주소록도 처음 발간했다.

한국인학교 설립과 한인사회의 발전

한인회는 1990년에 한국인학교 설립 추진안을 확정하고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장열)를 만들었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는 싱가포르 한인회와 모국의 지원으로 1991년 8월에 대지 831평과 건물 300평을 매입했다. 학교는 건물 수리 공사를 마치고 싱가포르 당국의 학교 인가를 받아 1993년 3월에 개교했다.

학교는 강장열 씨가 이사장을 맡고 본국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초등학교 전 학년 과정을 개설했다. 동포들이 힘을 합쳐 1973년 12월에 한인회 산하로 개교, 1976년에 제1회 졸업식을 치른 토요 한글학교는 1994년 3월 1일 한국국제학교에 편입됐다. 한국국제학교는 토요 한글학교 외에 중등부 보충 과정도 부설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1994년 말의 집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인인은 3천768명에 달했다. 그러나 시민권 및 영주



2

권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자는 198명에 불과하며, 체류자가 3천570명이었다. 체류자는 주재원 및 가족이 약 500세대로 1천800명, 기술자가 약 300명, 싱가포르 소재 대리점 소속 취업선원이 약 300명, 관광 가이드와 단기 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이 약 500명이었다.

한인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한인 동포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9월에 발간한 '재외동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가 718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싱가포르 거주 한인인 1만 9천45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싱가포르의 한인들은 금융, IT 계통의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무역, 건설, 관광, 유학원, 요식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장을 거듭해온 한인회는 정월 대보름 효 한마당, 한인 골프대회, 한인 가족 체육대회,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 등 큰 행사를 매년 주최하고 있다. 그밖에 각종 재능 기부 봉사활동과 강연회 등도 개최하며, 한인 소식지 '한누리'와 웹사이트(www.koreansingapore.org)를 통해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학교로 성장하며 2012년 고등학교 과정 개설 등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국제학교는 한인 학생은 물론 현지인에게도 한국인의 기상과 한국 문화를 전하고 있다. **장**

1. 2014년 11월 1일 싱가포르 니안 시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열린 'K-푸드 페어 2014' 개막식에 동포와 현지인이 모여들었다.
2.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이 2008년 7월 태국 여행 중 기념사진을 찍었다.
3. 한국과 싱가포르 간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싱가포르 한인 동포는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진은 2006년에 열린 제4회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4. 2005년 8월 4일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림 흥 키앙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외교통상부에서 양국 간 체결할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을 하고 있다.
5. 한국무역협회는 2006년 3월 14일 싱가포르 지부 개소식을 가졌다.



3



4



5

한민족 비즈니스 장 ‘제14차 경주 세계한상대회’ 성료 수출 상담·관광 홍보·일자리 창출... “세 마리 토끼 잡다”



지난 10월 13일부터 사흘간 ‘한(韓)민족의 자존심, 세계로 뻗어 가는 한상(韓商)’이란 주제로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한상대회’가 차세대 한상 발굴·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창조경제 제2의 도약을 다짐하며 1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44개국 1천여 명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 200여 개 업체 임직원 등 총 3천799명이 경주에 모여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질적으로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3일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했다는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광복 70주년을 맞이했고 한상 네트워크는 한국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모국의 도약에 이바지했다”면서 “세계한상대회는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발전해온 모국이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두 축으로 새로운 7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응비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14일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등 대회 최초로 국내 대표 대기업 CEO의 재능기부 멘토링인 ‘한상 창조 컨퍼런스’가 열렸다.

두 대표는 이구동성으로 IBK기업은행과 삼성전자의 성공 비결이 세계시장에 도전해 성공을 이룬 한상의 자기 혁신·창의성·의지·열정 등과 동일했음을 강조하며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한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피력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냈다.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전시회 3천948건, 1대1 비즈니스

1.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한상대회에는 44개국 1천여 명 한상(韓商)과 국내 중소기업 200여 개 업체 임직원 등 총 3천 799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2. 이번 대회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총 4천876건의 상담이 이뤄져 약 1억10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3. 국내 청년 취업난을 돕기 위해 새로 도입한 한상기업 취업 공개 오디션인 '한상&청년, Go Together!'은 청년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로 인정 받았다.
4. 경주 세계한상대회에는 한상 네트워크의 모국 투자 기회 발굴을 돕는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이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2



3

미팅 545건, 유통바이어상담회 383건 등 총 4천876건의 상담이 이뤄져 약 1억100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기록, 내실 있는 대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청년 실업난 해소를 도울 한상기업 취업 공개 오디션인 '한상&청년, Go Together!'에서는 35개 한상기업이 최소 30명 이상 채용을 추진해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업전시회에는 20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60개 부스가 설치돼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한상특별관, 중소기업 특별관, 글로벌식품관, 수출우수기업관, IT기업관 등 부스 구성으로 다양한 관심 분야를 가진 참가자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1대1 비즈니스미팅은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한 사전

매칭을 거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 될 수 있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참여 한상의 지역 거점이 확대되고 신규 참가자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한·러 수교 25주년에 맞춰 러시아·CIS 지역 한상 참가가 눈길을 끌었다.

러시아 지역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 신규 참가자만 해도 6명에 달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 지역의 한상 참가가 증가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을 대표하는 경제인인 신브로니슬라브, 김아나톨리가 새로이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 멤버로 영입됐으며, 대회 최초로 아·중동 지역에서 UAE의 신동철과 가나의 임도재 한상도 합류했다.

또한 이춘일 북경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과 허덕한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등도 참여하게 돼 조선족 한상의 증가가 주목을 받았다.

더불어 지난 대회를 통해 쌓아온 한상 네트워크 노하우를 집대성해 대륙별·산업별 특징에 적합한 비즈니스 해법을 공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에 한상들은 물론 해외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려는 국내 경제인들까지 참여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상들은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문을 연 기업전시회를 방문해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조 이사장은 폐회사에서 “장보고의 DNA를 지닌 한상과 국내 경제인들의 뜨거운 열정 덕분에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대회였다”며 “한상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국의 제2 도약을 위해 한상 네트워크의 지력을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오는 2016년 차기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IC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상]**



4

'재외동포 영웅 찾기 프로젝트' 2탄의 주인공 허병렬 교사 살아 있는 '한국어 교육의 전설'



박기태 반크 단장과 허병렬(오른쪽) 교사

'전 세계 한국학교의 역사', '한국어 교육의 전설',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어머니', '한국의 페스티벌로치'로 불리는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다. 바로 뉴욕 한국학교 설립자이자 교사인 허병렬(90) 할머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재외동포 영웅 찾기 프로젝트' 제2탄으로 허 할머니를 알리는 '한국학교의 어머니-허병렬 선생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제작해 최근 유튜브(<https://youtu.be/6q7chwDBXD0>)에 올렸다.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간 그는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교수가 되는 꿈을 꿨지만, 뉴욕의 한 한인교회에서 주말 한글학교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주저앉게 된다. 그를 비롯한 7명이 뜻을 모아 1973년 브롱스 리버데일의 JFK 하이스쿨에 매주 토요일 문을 여는 '뉴욕 한글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한국학교'로 발전했다.

그는 미국 모든 주의 한국학교 교사가 매년 한자리에 모여 자녀 교육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콘퍼런스를 꿈꿨고, 1980년 처음으로 뉴욕 한국학교에서 '미주 동북부 지역 한국학교 교사 초청 연수회'를 열었다. 이 연수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학교 교사 연합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의 시작이다. NAKS는 현재 미국 전역에 14개 지역 협의회를 두고 있다. 1천개가 넘는 학교에서 5천여 명의 교사가 4만 명의 동포 자녀를 가르친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한국학교와 결혼했다고 말하는 허 할머니는 2009년 교장직을 제자에게 물려주고, 다시 매주 토요일 100여 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영상을 설명한다. 이런 공로로 그는 소수민족 우수인상(1984년), 제29회 소파상(1985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석류장(1989년), KBS 해외동포상(2004년) 등을 받았다.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본고장 남미 춤의 진수 선보인 크리스탈 유 아르헨티나 유일의 한인 탱고 댄서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현지인 못지 않은 명성을 누리며 탱고 댄서로 활약하는 유일한 한인이 있다. 10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남미 한인 이주 반세기 기념 코리안 페스티벌'에서 남미 탱고의 진수를 선보인 크리스탈 유(한국 이름 유수정·49) 씨가 그 주인공.

세종대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한 유 씨는 한국체육대학에서 사회체육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틈틈이 다양한 춤을 익혔다. 그가 탱고와 운명적으로 만난 것은 1989년. 동양인 최초로 '탱고 마에스트로' 칭호를 받은 공명규 씨가 한국에 정착해 탱고 교습소를 차리자 그



곳에 다니며 실력을 쌓고 그와 호흡을 맞췄다. 2004년에는 탱고의 본고장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세르반테스 국립극장에서 공 씨와 함께 탱고 공연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2005년 6월에 아르헨티나로 탱고 유학을 간 그는 새로운 탱고를 배우는 기쁨과 공연의 즐거움에 빠져 어느덧 10년을 보냈다. 유씨는 2008년도에 '네꾸에르도 데 땅고'(탱고의 추억)라는 탱고 팀을 만들어 각종 페스티벌과 행사 등에서 공연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아르헨티나 이민청으로부터

문화공로상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마노블랑카라는 탱고박물관이 문화 활동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라 오르덴 델 부손' 상도 수상해 탱고 댄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탱고에 깊숙이 빠져들면서 반대로 자신이 전공했던 한국무용을 현지인에게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는 그는 2014년에는 '뿌리'라는 한국무용 팀을 만들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립 문화원과 한국학교 등에서 현지인과 한인에게 한국무용도 가르치고 있다.



탱고의 본고장 아르헨티나의 탱고 댄서 유수정(오른쪽) 씨

보츠와나공화국에서 자동차 정비로 성공한 김채수 한인회장

대통령과도 의형제를 맺은 유명 인사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잠비아, 나미비아에 둘러싸인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공화국. 인구 215만 명 가운데 한인 130여 명이 사는 이 나라에 성공한 한인이 있다.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인공은 1987년 이 나라에 진출해 28년째 거주하는 김채수(56) 한인회장이다.

그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다. 그러나 자동차 정비 기술 하나로 이 나라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심지어 대통령과도 의형제를 맺은 막역한 사이다. 1991년부터 4차례 한인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전남 곡성 출신인 그는 9남매 중에 다섯째로 태어났다. 부친이 만주에서 부를 일군 거상(巨商)이었지만 전쟁 통에 재산을 북한에 두고 남한에 내려오는 바람에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 김 회장은 중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상

경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부품 수리를 시작으로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운 그는 군 복무를 하면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대 후 산업인력공단을 찾아가 정비 시험을 본 그는 합격 통지서와 함께 대우건설 보츠와나 현장으로 떠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1987년 2월 난생처음 보츠와나 땅을 밟은 것이다. 고생 끝에 그는 1991년 가보로네에 '김스 오토'란 이름의 자동차 정비공장을 차렸다. 고객이 늘어나면서 정비소 앞 땅을 사들여 판금공장도 세웠다. 자동차 부품 수입에도 손을 대면서 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이제 그는 자동차 정비를 그만두고 한국과 한국인의 보츠와나 진출을 지원하는 컨설턴트가 됐다. 네오인포메이션 등 보츠와나에 진출한 기업 대부분은 그의 도움을 받았다. **창**



중국 헤이룽장 성 안중근 의사 기념관 지역 명소 부상 하얼빈역 개축하며 확장 예정

홍창진 | 연합뉴스 하얼빈 특파원

중국 정부가 작년 1월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역에 개관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 기념관은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현장에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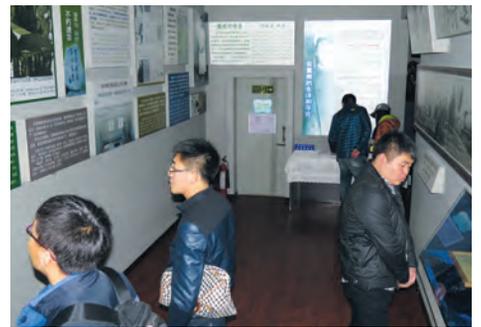
개관 초기 하얼빈에 사는 동포와 한국인 관광객 등이 관람객의 다수를 이뤘으나 최근 들어서는 언론 보도와 입소문을 통해 기념관 존재를 알게 된 중국인들이 관람객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과 일본 정부의 반발 등 많은 화제를 낳은 안 의사 기념관은 개관 2주년을 석 달 앞둔 현재 2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했으며 하루 평균 50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어린 시절 항일전쟁을 직접 겪은 70대 이상 노년층이 많이 찾아와 안 의사 행적을 돌아보고 있다.

200m² 규모의 기념관 입구는 하얼빈역의 옛 입구 모습을 그대로 축소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기념관 내부로 들어서면 입구 바로 오른쪽에 배치된 안 의사의 흉상과 동양평화론에 대한 소개가 눈에 들어온다. 안 의사가 순국하기 전 뤼순(旅順)감옥에서 집필한 동양평화론에 대해 기념관 측은 “안 의사의 구상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벗어나 지역경제 공동체와 블록 경제론, 공동 방어론을 주장한 것이었다”는 주석을 달았다.

기념관 왼쪽 벽에는 ‘안중근이 조선반도 근대사에 저명한 독립운동가로, 1879년 9월 2일 현재의 조선(북한) 황해도 해주부에서 태어났다’는 설명을 시작으로 안 의사 가계도와 가정교육, 신앙 등 유년기 관련 자료들이 전시됐다. 이어 일제 침략기의 시대적 상황과 안 의사가 의거를 준비한 ‘하얼빈에서의 11일간의 행적’이 10여 장의 사진과 해설로 소개됐다.

오른쪽 벽에는 안 의사의 의병 투쟁과 단지(斷指)동맹, 최후의 유언 등 안 의사가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업적과 사상을 조명한 사진과 사료가 전시됐다. 특히 기념관 안에서 관람객이 통유리



중국 헤이룽장 성 하얼빈역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위).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는 하루 평균 500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아오고 있다(아래).

창 너머로 하얼빈역 1번 플랫폼에 있는 안 의사의 이토 저격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다. 저격 현장 바로 위 천장에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격살 사건 발생지 / 1909년 10월 26일’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기념관 관리 책임자인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양싱룡(楊興龍) 관장은 “올해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관련 보도를 통해 하얼빈의 안 의사 기념관 소식을 접하고 중국인이 많이 찾고 있다”며 “중국 철도 당국이 내년부턴 2018년까지 하얼빈역을 단계적으로 개축하면서 새로운 안 의사 기념관을 역사 내에 현재의 2배 정도 규모로 확장해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재외동포의 국내 사업 투자와 조세 감면 혜택 원자력, 방송 외 해외투자 환영!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가능 업종, 세금 신고 방법, 조세 감면 등을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란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구분된다.

외국 투자자는 원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및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같은 국제 경제협력 기구를 뜻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에게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 투자 자금은 원칙적으로 해외 원천 자금이어야 한다.

투자 가능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 투자 대상 업종 1천85개 중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텔레비전 방송업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개방돼 있다. 그러나 육우 사육업 등 26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비율의 제한 등 일부 규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나,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0% 미만도 가능하다. 육우 사육업 50% 미만, 정기 항공 운송업 50% 미만 등 업종에 따라 투자 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다.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의 탈세나 조세 회피를 막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고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0월 22일 아사히신문은 한국 신한은행에 출자한 복수의 재일 한국인 주주 9명이 최근 수년간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 등 약 28억 엔(약 267억 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최근 일본 세무조사에서 지적됐다고 전했다. 한일 조세조약에 의해 한국과 일본 세무 당국은 배당금 및 이자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2009년 '역외 탈세와의 전쟁'에 나선 지 4년 만인 2013년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국제세정에 적발된 역외 탈세 추정 세액이 처음 1조 원을 넘는 기록을 세웠고, 2014년에는 이보다 1천 300여억 원이 늘어난 1조 2179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세 감면 제도를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촉진책을



10월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2015 하반기 외국인 투자 자문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펴왔다.

외국인 투자는 신고 시 제출하던 각종 첨부 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고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세 감면 제도도 확충해 감면 대상인 고도 기술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사업 지원 서비스업을 조세 감면 대상 사업에 포함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새로이 공장 시설(사업장)을 설치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 조세, 임대료 감면 비율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의 경우 종전의 8년(5년간 100%, 3년간 50%)에서 10년(7년간 100%, 3년간 50%)으로 감면 기간을 늘리고,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5년 범위 내에서 감면 기간과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Q&A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배당금이나 매각 대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이나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 대금 등은 투자 당시의 신고 또는 허가한 내용에 따라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미국 공식 방문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비행 센터를 방문해 한미 우주 산업 협력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월 16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을 공식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오찬 회담, 공동 기자회견의 일정을 소화하고 워싱턴DC 앤드루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3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해결 의지를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특히 한미 정상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가 정제된 가운데 북한·북핵 문제만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처음으로 채택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중국에 이어 미국과도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통일 외교의 속도도 높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14일 제막 20년이 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밤미 일정을 시작한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 관련 인사들이 총출동한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서 "한국은 미국의 영원한 친구이자 신뢰할 파트너이며, 한미 동맹은 미국 아태 재균형 정책의 핵심 축"이

라면서 동맹 강화 행보를 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우리 정상으로는 50년 만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찾았으며 이후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참석 등을 통해 우주 분야를 포함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통일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미국 여론 주도층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한미 동맹 강화 행보는 15일 오전 미국 국방부(펜타곤) 방문으로 정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미국 패권의 중심부인 펜타곤에서 한미 장병들에게 "여러분이 한미 동맹의 심장"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도 박 대통령의 이런 동맹 강화 행보와 관련, 조 바이든 부통령 초청 관저 오찬, 펜타곤 의장대의 공식 의장행사, 숙소인 블레이 하우스(영빈관)에 박 대통령 사진 비치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예우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재계회의 참석 등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한미 양국 기업에 모두 이익이 된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장**

바른 말 고운 말

모꼬지 “팀별 실적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팀이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래서 자축하는 뜻에서 오늘 저녁에 모꼬지를 한다고 하네요.”

위의 인용문에서 ‘모꼬지’는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말합니다. 옛말 가운데 ‘모’자 밑에 ‘디’ 받침을 쓰는 ‘뭉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뭉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뭉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모꼬지’입니다. 그러니까 ‘모꼬지’는 ‘모이다’와 관계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리켜서 ‘파티’라는 영어 표현을 쓰거나 ‘연회’ 또는 ‘집회’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말을 대신할 만한 고유어 표현이 바로 ‘모꼬지’입니다.

참고로 ‘꽃다지’라는 말은 오이나 가지 등의 맨 처음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멍에 / 코뚜레 우리 속담에 ‘보지 못하는 소 멩에가 아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이 지워졌다는 뜻입니다.

도시에 사는 이들은 농사와 관련된 일이나 시골 생활에 관한 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멩에는 말이나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도록 하기 위해서 목에 가로축으로 얹어 놓은 나무를 말합니다. 소 한 마리에는 짐을 끌 때 목에 매우는 멩에가 하나만 필요한데, 앞 못 보는 소에게 멩에가 아홉 개나 매워졌으니 끝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멍에라는 말은 그 외에도 행동에 구속을 받거나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소의 코에 둥근 고리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소의 코창을 꿰뚫어서 끼는 고리 모양의 나무를 ‘코뚜레’ 또는 ‘쇠코뚜레’라고 합니다.

낱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일을 잘못해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
- 두 사물이 서로 맞서거나 해를 끼쳐 어울리지 아니함. 또는 그런 사람
- 기본 일이 있을 때에 음식을 차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 여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 얕은 사람을 찾아가 위로함
- 국가의 면허를 받아 약(藥)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논밭’의 한자어
- 새로운 세상을 이르는 말
-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
- 이빨에 독이 있어 독액을 분비하는 뱀
-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말의 사람

-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술
- 싸움에 진 군대의 병사 가운데 살아남은 병사
- 병원이나 가정에 늘 준비해 두는 약품
- 물음과 대답. 또는 서로 묻고 대답함
- 하늘에 오름
-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해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
-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
- 글씨나 그림 따위를 지우는 물건
- 지방 기상청 소속으로, 관할 지역의 기상 상태를 관측·조사·연구하는 기관

▶ 오른쪽 방향 열쇠

-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연달아
- 옛날에는 분화했으나 지금은 분화를 멈춘 화산
-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행형(行刑)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 여자가 화장할 때에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

▶ 아래쪽 방향 열쇠

- 음식점이나 다방 따위에서 조리를 맡은 곳의 우두머리
- 로마 가톨릭교
-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잠깐 동안 머물러 쉬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장소
- 멧돼지를 길들여 가족으로 만든 포유류. 몸무게는 250kg 내외이며, 다리와 꼬리가 짧고 주둥이가 삐죽하다.
-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거쳐하는 방
- 법적 소속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분 따위를 파거나 광물을 캐냄

▶ 10월호 정답

	아		이	순	신		자		
후	궁		중			작	명	소	
	이		창		당		중		
총		잔		교	황	청		목	
영		치	약			백	사	장	
사	탕			멸		리			
				조	중	사		세	
미	소		명	수	수	방	관		
	풍		탄	광	갑				

사랑하는 아들

김외숙 미국 | 2013 재외동포문학상 수필 부문 우수상

내 아들은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아들은 태어나면서 내 아들이었다. 엄밀히 말하면 아들은 조카다. 그 애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없었고 아빠는 몸이 좋지 않았다.

시동생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 있는 나에게 말했다. “형수, 형수가 우리 아들 맡아서 키워주면 안되나?” 라고. 나는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알았다고 말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

아들은 5살까지 아파하고 살았다. 그러다 어느 날 시동생이 “형수 이제 데려가세요”라고 말했다. 시동생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은 울지도 않고 낯선 이곳으로 왔다. 새로 생긴 누나도 엄마도 아빠도 다 낯선 이곳인데 5살 꼬맹이는 울지도 않았다.

자기 운명인 것처럼 너무 잘 적응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점심을 싸주면 가지고는 가는데 먹지는 않고 도로 가져와서는 슬쩍 침대 밑에 두는 바람에 청소를 할 때면 몇 개가 나오고는 했다. 아들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원형탈모 증세까지 보였다.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힘이 들었나 보다.

처음에는 나도 힘이 들었다. 어떤 날은 괜히 맡아서 키운다고 했나 하는 생각도 했다. 다른 형제도 있는데 내가 무엇 한다고 그랬나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들었다. 내가 아들을 맡아서 키운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를 했다. 자기 자식도 힘든데 남의 자식을 맡아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 어떤 이는 내가 딸만 둘이라 아들이 없어서 키운다고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모르는 남의 자식도 키우는데 나는 조카를 못 키우나’ 하고... 그 애가 딸이었어도 나는 키웠을 것 같다.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내 가족 누군가는 해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족이니까.

아들은 예쁘고 밝게 잘 자라주었다. 나도 누나들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야단치고 칭찬하고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 처음에는 나도 그 애도 서먹했다.

나도 퐁기저귀 갈면서 잠 못 자면서 키운 아들이 아니라 한다고 해도 어색함이 있었다. 그러나 정이란 사랑이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정말 우리 애들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이 키우고 있었다.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정이 그렇게 들었다.

아들 8살 때 시동생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동생은 아들을 보내고 전화통화를 해도 바꾸어 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물어보기만 했다. 내가 바꾸어 준다고 하면 괜찮다고 잘 크고 말 잘 듣나 하고, 형수 믿는다고 죽어서도 은혜 갚는다고 매번 이야기를 했다.

어느 해는 남편이 한국에 가니 아들 선물이라고 신문지





에 쓴 것을 쥐서 보니 차 안에서 쓰는 작은 청소기였다. 받아는 왔는데 아들에게 필요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줄 것은 없고 그것이라도 주고 싶었는가 보다 하고 남편이 얘기하며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그런 시동생이 이 아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또 어떻게 이 애한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었다.

아들에게 한국 아버지는 하느님이 불러서 하늘에 먼저 가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니 8살 꼬마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누나와 노는 것을 보고 그래도 내가 잘못 키우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아빠를 잊지 말라고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 제사란 큰 의미보다는 아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날은 시동생 얘기를 주로 하면서 아들에게 아빠 추억을 준다. 얼마 살지 않고 간 사람을 누군가가 기억을 해주고 있다는 것, 아들에게는 우리 말고 너를 너무 사랑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것을.

아들한테는 그날은 한국 이야기를 많이 시킨다. 5살 꼬마가 기억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살던 집 이야기, 혹시 생각나는 친구가 있나 하고 매년 어쩔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말을 시키고는 한다.

나는 속으로 항상 기도한다. 삼촌, 이 아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방향하지 말고 밝고 예쁘게 잘 자라서 좋은 짝 만나서 오래오래 잘살게 해줘요. 삼촌 뭇까지 잘살게 해줘요. 밖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게 될지 모르니 삼촌이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해 달라고 항상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그 덕인지 우리 아들은 너무 예쁘게 자라 주었다. 남자애들이 다 겪는다는 사춘기 방향도 없이 너무 좋은 친구를 사귀고 내가 걱정하는 짓을 한 번도 안했다. 운전도 시켜보면 우리 딸들보다 더 천천히 안전하게 해서 내가 너무 고마웠다.

남자애들은 과속을 많이 해서 벌금 딱지도 잘 떼인다는데 우리 아들은 별명이 영감님 운전이다. 너무 안전하게 해서 누나들이 붙여줬다.

고등학교 때에는 에너지가 넘쳐서 다른 곳에 혈기가 넘칠까 걱정했는데 축구 선수를 하고 거기다가 공부도 잘해

중고등학교를 우수 학교를 다녔고 내가 사는 곳에서 제일 좋은 주립대학을 전 학년 장학생으로 들어가더니 어제는 졸업했다.

아들이 졸업식장에 들어오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주책없이 상황 판단도 못하고 나오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 부끄러웠다.

당당히 졸업식장에 앉아 있는 내 아들.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태평양을 건너 낯선 곳에 온 5살 그 꼬마가 지금 당당하게 저 자리에 앉아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애들보다 더 씩씩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니.

나는 아들 졸업식을 지켜보면서 17년 세월이 영화관에 영화 필름이 돌 듯 지나갔다.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오기가 또 얼마나 벅차고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 친엄마만큼 해 주었을까, 아들에게 나는 무엇일까,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이제 아들은 대학원에 간다. 대학이 끝이 아니라 1장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6월에는 못사는 남미 쪽에 가서 봉사하러 간다. 아마 시간이 되면 매년 가서 봉사를 할 것이다. 자기 사비를 들여가는 봉사라 더 의미가 있다. 물이고 모든 물자가 부족하니 아껴서 쓰는 법,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오는 것 같아 고맙다.

작년에 갔다 와서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고, 자기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해 감동을 주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준 우리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아들은 9월이면 치대 대학원에 간다. 그리고 말한다. 치대를 나오면 이가 아파도 돈 때문에 못 가는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17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하니 아들이 와서 나에게 너무 많은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시동생에게도. 그리고 크게 외친다.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고...

OKF NEWS

세계한인정치인포럼서 통일 위한 한인 네트워크 모색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는 10월 21일 오후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4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을 개최했다.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한반도 통일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3일까지 열렸다.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은 2007년부터 3년간 열리다 2010년 예산 부족과 일정 문제로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한인 정치인 40여 명과 국회 및 정부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일본 민주당 하쿠 신쿤(白眞勳) 참의원, 미국 뉴욕주 로널드 김 하원의원, 우즈베키스탄 빅토르 박 국회의원 등이 포럼을 위해 고국을 찾았다.

임용근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720만 재외동포가 한반도 통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서로 교류하며 통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한인 정치인의 성공은 한민족의 끈기와 인내를 보여준다"며 "이번 포럼이 소수민족으로서 정계에서 활동하는 고충을 나누고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환영 만찬을 주최한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인 정치인이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더 튼튼해지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22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위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하쿠 신쿤 일본 참의원, 신디 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

원, 옥상두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 등이 각 나라의 선거 제도와 정치 현황을 발표했다.

세션 후 참가자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23일에는 이홍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장의 리더십 특강과 참석자의 종합 토론으로 포럼 일정을 마무리했다.

미얀마 한인사회 숙원 '한인센터' 개관



10월 10일 미얀마의 경제수도인 양곤에 한인사회 숙원사업이었던 '한인센터'가 개관했다.

미얀마에 거주하는 3천여 명 한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인센터(KOREA CENTER)가 10월 10일 경제수도인 양곤에서 정식 개관됐다.

양곤 동부 지역 띠간준 타운십에 3층 단독 건물로 완공된 한인센터는 교실 13칸, 도서관, 대강당 등 한글학교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인회 사무실은 이미 입주해 있고 향후 한인 동호회 활동이나 미얀마인을 위한 한



10월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4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개회식에서 참석자와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어 학당 및 예술품 전시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인센터의 개관은 35년 역사를 가진 미얀마 한인 사회가 이국 땅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한글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르치고 심어줄 수 있는 터전이 될 한글학교를 마련해 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미얀마 한인회는 10여 년 전 모금운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1년 박차를 가해 소중한 열매를 맺었다.

이정후 미얀마 한인회장은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과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주역으로 성장하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개관식에는 최동준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도 참가해 축하를 건네고 한인사회의 고충 등을 청취했다.

한인센터는 미얀마의 현지 기업이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이에 더해 재미미얀마 한인, 진출 한국 기업, 재외동포재단 등 미얀마와 관련이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금과 현물 지원에 나서으로써 완공됐다.

양국 국민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순수한 민간 차원의 한인센터가 단기간 내에 마련된 것은 세계 한인 사회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한인센터는 주말 한글학교와 한인들의 사랑방이라는 고유의 역할 이외에도 현지인에게 한국 드라마, 한식, 케이팝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살롱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미 한인 이주 반세기 기념 ‘코리안 페스티벌’ 팡파르



10월 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 마지막 출연자로 국민 가수 이문세가 나와 흥겨운 무대를 꾸몄다.

‘열정의 대륙’인 남미로 이주한 한인들이 이민 반세기 동안 흘린 땀방울을 재조명하고 이들이 거둔 성취를 축하하는 잔치 마당이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10월 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국내외 예술인들이 다양한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2015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아르헨티나·파라과이 한인 이주 50주년’을 기념해 ‘꼬레아노! 태양에 오르다’란 제목으로 막을 올린 이번 축제에서는 맨 먼저 남미를 개척한 한인의 발자취와 이들이 현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뿌리 내린 활약상 등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370여 명의 한인회장도 자리를 함께해 남미 한인사회가 이룩한 성과를 축하했다.

국내 남미 음악 밴드 대표주자인 로스 아미고스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 무대에 오른 조규형 이사장은 “코리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 아티스트를 국내 무대로 초청해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자리”라며 “특히 올해는 남미에서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축으로 성장한 한인들의 위상을 국내에도 널리 알리고자 무대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곧이어 박은영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본격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구성된 ‘오리엔탱고’가 무대에 올라 아스톨라 피아졸라 작곡 ‘리베르탱고’를 연주하고 이 곡에 맞춰 아르헨티나 유일의 한인 탱고 댄서 우수정이 이끄는 탱고팀과 부에노스아이레스탱고팀이 화려한 춤을 선보였다.

라틴 팝페라 그룹 ‘트루바’, 볼리비아 동포 출신 가수 임병수, 4인조 남성그룹 스위트소우, 트로트 가수 홍진영 등 국내 인기 뮤지션들도 무대에 올라 객석을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출연자로 ‘국민 가수’ 이문세가 나와 히트곡을 연이어 불렀고 청중은 이른바 ‘떼창’ (군중이 다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화답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출연진의 노래에 맞춰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 보니 목이 쉬었다는 박종범 유럽한인 총연회회장은 “낮설고 물 선 타향에서 뿌리를 내린 한인들은 모두 한민족의 영토를 넓혀온 개척자”라며 “멋진 탱고 무대와 고국 가수들의 축하 공연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리안 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동포 예술인을 초청해 개최하는 한민족 문화예술 축제로 1998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충남 논산의 강경 젓갈 정식

세월이 빛은 진정한 밥도둑



아무리 산해진미가 가득 놓인 식탁을 차린다 해도 한 번에 밥 세 그릇을 먹기란 쉽지 않다. 배가 적당히 불러오면 슬며시 숟가락을 놓기 마련이다. 강경 젓갈 정식은 다르다. 밥공기가 비어갈수록 눈앞에 펼쳐진 젓갈의 향연에 더욱더 빠져들게 한다. 탐식(貪食)인지 탐미(貪味)인지 모를 욕망이 온몸을 지배한다.

강경에서 젓갈정식을 주문하면 쟁반 가득 젓갈을 가져온다. 열다섯 가지가 넘는 젓갈이 하나둘 식탁 위에 자리를 잡고 맛을 뽐낸다. 젓갈 중에는 우리 눈에 익은 것도 많다. 새우젓, 조개젓, 어리굴젓, 오징어젓, 꼴뚜기젓, 창난젓, 명란젓 등이다. 또 일부는 낫설다. 토하젓, 청어알젓, 멍게젓, 낙지젓, 가리비젓, 아가미젓, 뽕맹이젓, 전어젓, 갈치속젓 등이다. 그리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황석어젓을 대신해 사촌 격인 조기절임이 등장하기도 한다.

젓갈은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운다. 더구나 한 번 맛보면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맛 때문에 밥그릇을 언제 비웠는지도 모를 정도다. 윤기가 흐르는 명란젓과 청어알젓은 누가 먼저 먹을세라 가장 먼저 집중 공략을 당한다. 살집이 통통하고 빛깔이 뽀얀 새우젓도 비슷한 처





강경읍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대흥시장은 강경 젓갈을 맛보는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10여 곳의 소규모 젓갈 상점이 모여 있고 시식도 할 수 있다.

지가 된다. 강경에서 먹는 새우젓은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족발이나 순대를 먹을 때 내주는 새우젓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다.

새우젓 옆에 있다가 덩달아 관심을 받게 있으니 토하젓이다. 작은 민물새우로 담근 토하젓은 고유한 흠내를 풍겨 후각까지 호사를 한다. 젓갈 재료 고유의 향이라면 명계젓도 빠지지 않는다. 입안 가득 향긋한 명계 냄새로 넘쳐난다. 사실 명계젓은 명계 속살을 소금에 절여 살짝 양념을 한 것으로 발효가 필수인 젓갈군(醬)에는 끼지 못한다.

갈치속젓, 아가미젓, 오징어젓 등은 비인기 종목으로 분류된다. 취향에 따라 마니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젓가락이 잘 가지 않는다. 바지락으로 담근 조개젓과 어리굴젓도 인기가 신통치 않다. 그래도 워낙 전통이 있는 젓갈들이라 젓갈 정식에서 빠질 수는 없다.

어떤 젓갈이 최고로 맛있는지는 먹는 이의 마음에 달려 있다. 식감에 따라 누구는 꿀뚜기젓에, 또 누구는 밴댕이젓에 감동받을 수 있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은 가리비젓도 예외가 아니다. 황석어젓은 맛이 강해서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선뜻 손길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황석어젓에 살짝 양념을 해서 무쳐 먹는 사람도 있다.

사실, 강경 젓갈 정식의

주인공은 강경 그 자체이다. 강경은 조선시대부터 전국 최대의 젓갈 주산지였다. 한양 마포나루에 젓갈을 대던 전국의 포구 중 강경이 가장 컸다. 뚝단배에 실려 마포나루로 올라온 강경 젓갈은 지금의 남대문시장 일대인 칠패를 시작으로 한강 수운을 타고 여주, 안성, 수원까지 퍼져 나갔다.

강경이 젓갈 주산지로 다시 떠오른 것은 10여 년 전이다. 지역 상인들이 새로운 젓갈을 개발해 선보이고 토굴 저장 숙성법이 각광받으면서부터다. 현재, 강경을 내 젓갈 판매점만 200개에 육박한다. 한국인이 먹는 젓갈의 60% 이상이 이곳을 거쳐 간다고 알려져 있다. 또 매년 김장철을 앞두고 강경 발효젓갈 축제가 개최돼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온다. 물론, 강경 젓갈 정식은 축제 때가 아니더라도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다. **장**



시대가 바뀌면서 강경 젓갈도 변모하고 있다. 저염도 젓갈이 대세를 이룬다. 젓갈을 담은 용기도 항균성 스테인리스 용기가 늘고 있다.

▶ 강경 포구



조선시대 강경에 넘쳐난 것은 젓갈만이 아니었다. 강경 포구는 금강 수계의 관문에 해당돼 교역을 위한 최적지였다. 성어기인 3~6월이면 하루 100여 척의 선박이 각종 해산물을 싣고 강경 포구를 찾았다고 한다. 서해의 풍부한 수산물과 금강이 배운 드넓은 평야를 기반 삼아 강경은 평양, 대구와 더불어 조선 3대 시장으로 오랫동안 군림할 수 있었다.

▶ 논산 여행 정보



• 당일 여행 코스

관촉사 → 탐정호 → 계백장군 유적지 → 돈암서원 → 개태사

• 논산 관광 안내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041-746-5402
논산시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 대중교통

KTX (서울-논산 1시간 30분 소요)
고속버스 (서울-논산 2시간 20분 소요)

• 식당 정보

둘체 젓갈정식 041-732-3422
옛촌 갈치정식 041-733-8855

2015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입상자 발표

'2015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관련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학위논문의 정부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논문주제의 시의적절성, 정책 및 사업 제안내용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예비심사, 본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7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단 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우수상(석사) | 윤오인:** 모국수학이 재일동포의 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우수상(박사) | 유오량:**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에 관한 연구
- 우수상(석사) | 전오미:** 재외 한글학교의 계승어로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 장려상(박사) | 손오서:** 인종, 사회이동 및 정체성; 미국의 한국이민자 자녀들의 경우
- 장려상(박사) | 이오결:** 재일한인 차세대의 정체성과 통일 의식 연구
- 장려상(석사) | 이오주:** 국내 거주 고려인 노동자 부부들의 적응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장려상(석사) | 조오가:** 키르기스스탄 고려말 어휘의 어원에 대한 연구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부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청춘은 Move! 세계로 Move!

2015 K-MOVE

해외진출 성공수기·사진 공모전

2015. 10. 01 ~ 11. 20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당신의 소중한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 해외진출 종류 : 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



K-Move는?

열정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공모대상

- 전 세계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자

공모주제

- 해외진출(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창업, 해외봉사)의 수기 및 사진

공모분야	공모 주제
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의 긍정적 경험 및 자신의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이 된 사례 · 해외진출 동기, 도전경로 및 준비과정, 해외진출 성공담 및 나만의 해외 적응 노하우, 해외체류 중 인상적인 경험담 및 에피소드, 해외진출로 인한 스스로의 변화된 삶 또는 시각 등 자유롭게 활용 · 해외진출에 대한 개인적 비전 및 K-Move에 대한 생각 · K-Move 프로그램 참여 경험 · 프로그램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ove스쿨, K-Move멘토단, K-Move센터 이용, 해외취업알선서비스, 해외취업성공강령, 월드잡플러사사이트 이용, 정부해외인턴사업, 코트라 글로벌 마케팅 인턴, 코이카 프로그램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경험자들의(본인에 한함)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이 담긴 해외진출 경험 사진

접수방법 및 문의

- 수기 1인 1작품 제한 / 사진 1인 2작품 제한
- 이메일 접수 : 2015kmove@gmail.com
- 성공수기 공모전 사무국 02) 566-9190

작품규격

공모분야	작품 규격
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혹은 MS워드 활용 / A4용지 2~3장(2,000~3,000자) 내외 · 수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등의 이미지는 별도파일로 제출 · 파일명 : 예) 수기_해외취업_홍길동_작품명 · 수기 파일 내 필수 기입사항 : 이름 / 연락처 / E-Mail (상단명기)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카메라 또는 이의 동등이상 성능의 카메라 사진 2,200X1,500pixel 이상의 jpg 파일 + 800자 내외 수기(한글 혹은 MS워드 활용) · 컴퓨터 그래픽 및 합성하지 않은 원본 제출 · 사진 파일명 : 예) 사진_해외취업_홍길동_작품명 · 수기 파일명 : 예) 사진_해외취업_홍길동_작품명_수기 · 수기 파일 내 필수 기입사항 : 이름 / 연락처 / E-Mail (상단명기)

시상내역

- 총 36 점 / 총 상금 1,350 만원

수상내역	수상작수	시상내역		비고
		수기부문	사진부문	
최우수상	2 점 (수기1/사진1)	상장 및 상금 300만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우수상	4 점 (수기2/사진2)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장 및 상금 50만원	
장려상	10 점 (수기5/사진5)	상장 및 상금 50만원	상장 및 상금 20만원	
가작	20 점 (수기10/사진10)	상장 및 상금 20만원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제세공과금 제외하고 상금 지급.

* 수상작은 정책홍보를 위해 주최측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주최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0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